

01 교회소식

새로운 영의 흐름을 타고

헌신예배를 통해 부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 해외 지교회 성도들의 행복한 성경 공부 등 국내외 소식.

02 생명의 말씀_ 선 시리즈 10

사도 바울의 선 2

사도 바울은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들리지 않는 마음이었다.

03 기획특집

마음속 큰 악의 뿌리들

성결을 이루기 위해 신속히 발견해 버려야 할 대표적 악의 뿌리 거짓됨, 정도를 걷지 못함, 간사함, 멸시함에 대해 살펴본다.

04 간증

우리가 느낀 주님의 고난과 사랑

2013년 부활절 기념 공연 연출을 담당한 양성대 장로와 막달라 마리아 역에 박혜원 자매가 현장의 감동을 전한다.

만민뉴스

제577호 2013년 4월 14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주님을 향한 우리 열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새롭게 결단한 2013 남선교회 헌신예배



우리 교회 남선교회 회원들은 직장과 사회에 파송된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곳곳에서 진리의 빛을 발하며 말씀과 기도로 천국을 침노해 나가고 있다(사진은 '2013 남선교회 헌신예배' 헌신자 전체 특송).

지난 4월 7일 주일 저녁예배 시 우리 교회 본당에서는 남선교회 회원들의 우렁찬 찬양이 울려 퍼졌다. 하얀 와이셔츠에 색장갑을 끼고 큰 북을 울리며 “나아가자, 나아가자, 세계를 향해~”를 소리 높여 부르는 남 장년들의 모습은 주님을 향한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2013 남선교회 헌신예배’는 GCN 방송(www.gcnetv.org)과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1만여 자·협력교회가 함께한 가운데 드려졌다. 대전, 마산, 광주, 춘천, 밀양, 서부산 등 전국 지교회 남선교회 회원들도 동참했다. 이날 예배는 남선교회 총연합회 회장 송석길 장로의 사회, 부회장 성낙훈 장로의 대표기도로 진행됐다.

강사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우리의 열심은’(딤후 4:7)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남선교회 회원들은 교회적으로 기둥 같은 역할을 해야 하며 한 가정의 머리로 가족의 신앙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처럼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남선교회 회원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열심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열심이어야 하고, 둘째 변개함이 없는 진실한 열심이어야 하며, 셋째 아무 대가 없이 오히려 고난 당해도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 뜨거워지는 열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헌신예배를 준비했다.”며, “영적으로 든든히 서고 세상에서도 빛을 발해 영육 간에 넘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한결같이 고백했다.

한편 진행 중인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와 더불어 31일 부활절을 통해 새롭게 변화된 남선교회가 7월 초에 있을 ‘2013 전국 기관장 교육’ 때 영적 장수들로 나올 것을 기대하며, 남선교회의 힘찬 행보에 큰 박수를 보낸다.

인도, 첸나이만민교회 성경공부

인도 첸나이만민교회(담임 한정희 목사)는 성경공부(Bible Study, 구역예배)를 통한 간증이 넘친다. 올해부터 첸나이 시의 킬파크, 엠모르, 빌리 바캄, 씨코 나가라, 지케이엠 켈로니, 기타 지역 총 6개 지역을 대상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다.

칼라 성도(31, 부구역장)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노력하니 마음이 변화돼 기쁘다. 우리 지역 성도들은 성경 지식이 많이 없었다. 성경공부를 통해 말씀을 알게 되니 영적인 충만함으로 모두가 하나 돼 부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니샤 성도(29, 구역장)는 “성경공부를 통해 성경의 영적 뜻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기초를 배우고 신앙 생활에 적용해 나가니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성도들의 열띤 호응으로 첸나이만민교회는 성경공부를 현재 화·목·금요일에서 수요일과 토요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천국의 열매’를 주제로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 진행

만민기도원 주관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가 지난 3월 18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매일 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주님 닮은 아름다운 마음을 이룬 천국의 열매가 되기 위해 간절한 기도의 향을 올리고 있다.

4월 28일까지 42일간 진행되는 이 기도회는 우리 교회 본당과 2성전은 물론 GCN 방송(www.gcnetv.org)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다. 시간은 오후 9시부터 11시 40분까지이며 단 주말은 9시부터 11시, 금요일은 금요일예배로 대신한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사도 바울의 선 (2)

1.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주님처럼 영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우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죄로 인해 사망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빌립보서 1:8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고백할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오히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그는 모진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에도 오직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하며 기도했습니다(고후 11:28~29).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며 애통했습니다(빌 3:18). 사도 바울은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각처의 교회에 다니면서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 살도록 밤낮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기를 쉬지 않았지요.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1~3을 보면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란 사도 바울의 육적인 일가친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로서 바울을 핍박하고 훼방한 사람들을 가리키지요.

심지어 유대인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자들도 있었습니다(행 23:12~13). 그런데도 바울은 설령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다 해도 자

신을 핍박하고 훼방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지요. 이처럼 바울은 악으로 나오는 상대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을 이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보다 지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대신 지옥에 가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지요. 영혼에 대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승한지를 말해 줍니다.

2.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마음

신약 시대 최고의 권능을 베풀었던 사도 바울은 앓은뱅이를 걷게 하는가 하면 독사에 물려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는 희한한 능이 나타났지요(행 19:11~12). 이처럼 크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면서도 그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아지지 않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10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겸손히 고백하지요.

이처럼 겸손한 마음을 지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어지는 삶을 통해 성결을 이뤘고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도 보게 해 주시고, 하늘에서 얻게 될 상급도 알려 주셨지요.

결국 사도 바울은 영의 것에 대한 사모함이 더해졌으며, 영의 깊은 계시를 받아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에 대해, 또한 천국과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밝히 알았습니다.

그는 깊은 영의 말씀들을 마음에 잘 간직했다가 은혜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들려 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3. 자신을 들리지 않는 마음

악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깨달음이 오거나 환상을 보고 비밀한 말씀을 들으면 자신을 들리는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은 기도 중에 깨달음이 왔다면 그것을 마음에 담아 자신에게 적용하지요. 영안이 열려 무엇을 보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영으로 정진해 들어가려고 자신을 들리지 않습니다. 또 깊고 비밀한 영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어찌하든 자신이 변화되고자 노력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사랑을 받아 깊은 계시를 받으며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룬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마음의 바탕 위에 오래 참음과 절제의 열매가 맺혀 있었지요. 좋은 말도 받지 못할 사람에게는 하지 않았고, 말할 수 있는 것도 혹여 실족 당할 사람이 있을까 해 절제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1~5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한 것입니다. 천국을 알려 줌으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되 자신을 자랑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령님에 대한 마음이 각별했습니다. 자신이 기도해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된 것임을 중심에서 인정했지요.

이처럼 자신의 의를 철저히 깨뜨린 후에는 아무리 크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도 중심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되, 하나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권능을 행할수록 자신은 더 낮아지고 하나님 영광은 더 커져 갔지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선한 중심을 가진 사람을 찾아 은사도 주시고 권능도 주셔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1:1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최고의 선을 이뤄 마지막 때 영광의 도구로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로마서 9:1~3)

사도 바울은 원래 자기 의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의식도 컸지요. 또 끊임없이 탐구하며 매사에 철저히 대비하는 성품이었습니다. 답을 낼 때까지 집요하게 궁구하며 고민했고, 이로 인해 ‘자아’가 단단하게 형성됐습니다. 한편으로는 호탕한 성격도 있었지만 늘 계산이 앞서고 생각이 앞섰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것이 참이 아님을 깨닫자 육의 것은 단번에 버렸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하에서 쌓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더욱이 한 번 받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변개치 않았습니다.

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향은 더욱 진하게 하나님께 올려졌지요. 그러니 악으로 나오는 상대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놀라운 권능을 베풀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의 기반을 마련해 이방인의 사도가 됐지요. 그러면 신약 시대 최고의 사도요, 권능을 베풀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선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공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 열릴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는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우리가 버려야 할 악의 큰 뿌리 4가지

삶의 지혜가 기록된 잠언 17장 3절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 하거나와 여호와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마음 안에 있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그런데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뿌리 깊은 악을 발견해 버리는 것이 쉽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과연 우리가 신속히 발견해 버려야 할 악의 큰 뿌리는 무엇일까?

진실치 못해 변질되는 육의 속성 ‘거짓됨’

1

진실치 못한 사람에게는 거짓된 모습이 많이 있다. 사람과의 약속은 물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말을 전할 때 보태거나 빼서 거짓말하기도 한다.

상대를 속이고자 고의로 하는 거짓말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자신이 거짓말하는지조차 모르며, 자신이 한 말이 결국 거짓말이 될 줄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다.

베드로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

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고백했다(마 26:34-35). 하지만 베드로는 그날 밤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말았다.

물론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지만, 막상 현실에 직면하니 두려움에 그 말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사람 마음에 거짓의 속성이 남아 있으면 스스로를 장담할 수 없으며, 자신의 고백도 지킬 수 없다. 따라서 신속히 거짓된 마음을 발견해 버려야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뜻을 좇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는 ‘정도를 걷지 못함’

2

정도를 걷지 못한다는 말은 ‘바르게 행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마음과 생각은 물론, 행동도 바르지 못한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법과 질서에 따라 바르게 살아간다면 이 사회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자녀들은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사로운 정이나 욕심에 이끌려 일을 어그러지게 만들고 불의한 것을 취한다면 이는 정도를 걷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할 때 헛 족속 사람들은 매장지를 거저 주고자 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볼 수 있다(창 23:13).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정도를 좇았다. 결국 그들은 사자굴과 풀무 불에 던져졌지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와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단 6:16-23; 3:19-27).

이처럼 하나님 뜻이라면 자신의 유익을 조금도 구하지 않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에서 바른 행함이 나오며 정도를 걸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같이 어떠한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정도를 걸었기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전 11:1)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다.

한 번 낸 말과 정한 마음을 지키지 않는 ‘간사함’

3

한 번 마음먹은 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변경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주 바꾸는 것은 간사함에서 비롯된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해도 처음에 결심한 일이 변했다면 이는 마음에 간사함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것도 간사한 마음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처음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열심히 충성하며 함께할 듯 하다가도 배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함이 없는 마음을 가지면 명예와 권세, 물질 등 세상 유혹

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 그래서 간사한 속성을 버리고 진실에 가까워진 사람일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 번 낸 말은 반드시 행하고 한 번 정한 마음은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사소하게 생각하고 여긴다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다. 자기 자신과는 물론,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마음에 정한 바를 지키고 행할수록 마음에 서간사함은 사라지고 진실함이 임한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는 ‘멸시함’

4

멸시는 업신여기고 낮추어 보고 깔보는 것이며, 권세와 직위로 상대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이다. 곧 교만하고 거만해짐으로 나오는 모든 행동이 이에 해당된다.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사람을 멸시하는 행동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고 할 때에나,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삼상 8:5, 출 16:8).

우리가 주 안에서 각 지체를 이루고 있으되 하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전 12:20). 만일 각 지체가 서로 멸시한다면 몸은 한 시도 평안할 수 없고, 제구실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지체는 각자 고유의 역할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설령 지식과 학식이 다르며 인격과 교양이 다르고 부유한 정도가 다르다 해도 남을 멸시해서는 안된다. 입이 눈더러 너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결국 눈이 없음으로 인해 입뿐만 아니라 온몸까지도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씀했다. 따라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곧 섬김의 자세가 된다면 결코 남을 무시할 수 없다. 항상 자신의 위치와 본분을 잊지 않고, 설령 사랑받고 인정받는 위치에 오른다 해도 그 마음가짐이나 행함은 변함없이 겸손해야 한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수요프로그램 안내

2013.4.14~4.20

4

April

www.gcntv.org

이제부터 본사의 생방송!

- 위로부터 난 지혜 7-9
- 믿음의 분량 5-9
- 3차 영혼육 8-12
- 창세기 강해 59-63
- 천국 23-27
- 전도 1-2 / 부활 2

GCN TV 생교

-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5-8 (이수진 목사)
- 근본의 악 2 (이희선 목사)
- 오중복음 3 (신동초 목사)
- 영을 향하여 3 (김승선 전도사)
- 'GCN TV특강' 일곱교회 4-8 (빈금선 권사)

찬양 프로그램

- GCN 파워플레이즈(2) 13-17
- 찬양과 경배 (3) 31-35, 38, 40

해외성회 시리즈

- 온두라스 연합대성회 2
- 페루연합대성회 종합편

간증 프로그램

- 크리스천 투데이 6-10, 13
- GCN 간증 스페셜 13-14, 1

워킹,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A/S 문의

1577-2073

하나님 영광이 깃든 아름다운 무대를 위해



“주님 사랑이 제 마음에 가득해요”

지난 2월, 부활절 공연 때 막달라 마리아役に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선한지를 배웠기에 그분의 아름다운 선을 무척 사모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막달라 마리아 배역을 한다고 생각하니 매일 다니엘철야 때 드리는 기도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절절해졌고, 값없이 주신 사랑에 감사하여 마음 다해 연습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연 중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



박혜원 자매
(3청년선교회, 천상의 무용팀 총무)

셉이 예수님 시신을 감싸며 염하는 장면에서 예수님 모습이 순간 당회장님 얼굴로 겹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성도들의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 애절하게 중보기도하시는 당회장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면서 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었고, 제가 소속돼 활동하고 있는 ‘천상의 무용팀’ 총무가 됐지요. 사랑의 하나님과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5202-5547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인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점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창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필리동 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시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